

일 주 문



파라미타 청소년 사경공모 접수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장 도후 스님은 5월 20일까지 제12회 전국청소년 사경공모전 참가자를 접수받는다.



법화정사 부처님사리 친견법회
서울 법화정사 회주 도림 스님은 4월 20일~6월 13일 '중생구원 세상구제를 위한 부처님사리 친견기도법회'를 봉행한다.



봉은사 전통등전시회 개최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5월 5일까지 제12회 전통등전시회를 개최했다.



나눔의 집 제3회 한일평화콘서트
위안부 복지시설 나눔의집 원장 원형 스님(급상사 주지)은 5월 3일 광주 시설내에서 한·일가수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한일평화콘서트'를 성료했다.



대경 리더십 아카데미 특강
은혜사 주지 돈관 스님은 4월 28일 대경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般若(반야)의 삶-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지름길'이라는 주제로 특강했다.



대성사 가톨릭과 합동 봉축법회
육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5월 2일 육천사 대웅전에서 봉축법회를 열고 육천성당 신촌주 주민신부를 초청해 축하행사를 가졌다.



붓다패밀리 공동체 건립
개원사 진호 스님(원웅종 총무부장)은 5월 11일 과천시 문광면 부지에 '붓다패밀리 좋은인연' 공동체 건립 기공식을 갖는다.



공플란드 무료진료 실시
공플란드 치과 최우환 원장은 4월 26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연이남자 천연염색전' 개최
김길환 작가는 4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서울 법원사 내 불일미술관에서 '연이남자 천연염색전'을 열었다.

화촉
법보신문사 정하중 기자는 5월 16일(토요일)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한남2동 남산예술원에서 신부 김윤미씨(前) 만불신문 기자와 화촉을 밝힌다.

“한국 불자들 자비불사 양국 형제애 효시”

미얀마 국민의 감사 담은 아신 스님의 편지 ‘화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난해 5월 사이클론 피해를 입었던 미얀마에서 한국불자들에게 감사사를 전하는 한통의 편지가 전달됐다. 미얀마 아신 내케이사라 스님(시타구 불교협회 대표)은 4월 24일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에 편지를 보내 “조계종 보시금이 마을 초등학교와 시골 고등학교 등 건축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아신 스님은 미얀마 국민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는 고승으로, 부정부패 등 각종 문제로 구호단체의 접근조차 차단하고 있는 미얀마 군정을 대신해 조계종과 함께 현지 구호에 나서고 있다. 조계종 사회부는 미얀마 사 이름론 재단 즉시 전국적인 모금·모연운동을 벌여 11월 구호식

앞두고도 천막생활 등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아신 스님이 보낸 편지 전문. 지금 우리의 이름은 ‘대승’과 ‘소승’으로 각기 다르지만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같은 교주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재화와 격려를 위해 같은 명제를 갖고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명제의 이름은 ‘자비’입니다. 저희 시타구 국제불교협회는 새로운 사람과 탐 불사는 물론이고 많은 병원과 학교의 재건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비 불사에 있어 조계종의 보시금은 마을 초등학교와 시골지역 고등학교 등의 건축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업이 한국과 미얀마라는 두 불교국가간의 장기적인 형제애와 상호 이해 축진의 효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얀마 이와와디 재해지역의 구호 등에 사용되고 있는 11만불 가량의 조계종 보시금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덕현 기자

“해외유출 문화재 찾기 큰 힘”

서울시문화재찾기시민위 흥윤식 위원장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이 문화재 반환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해외유출 문화재 제자리찾기 운동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4월 17일 서울특별시문화재찾기시민위원회(이하 문화재찾기 시민위) 위원장에 위촉된 동국대 흥윤식 명예교수(일본규슈대학 특임교수)는 이와 같은 말을 소감을 대신했다. 문화재찾기시민위는 서울시가 해외 소재 우리문화재의 환수를 통해 국민들의 문화재 애호의식을 고양하고, 해외 유출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흥윤식 명예교수를 비롯한 학계·종교계·언론계 인사와 서울시의원, 법조인 등 34명의 각계 인사가 참여했다. 특히 불교계에서는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것을 비롯해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범 스님(육천암 주지),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해문 스님(봉선사), 박경희 이사(불



교인재원), 정웅정 이상근 중앙신도회 문화재환수위원 등이 대거 위촉됐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2년간 활동(연인가능)하며 해외 소재 우리문화재 반환과 관련된 활동 지원 및 실태 파악, 자료구축, 법률 자문 등을 맡게 된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조선왕조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과 자문도 겸하게 된다. 흥윤식 명예교수는 “문화재찾기 시민위는 해외문화재 반환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5월 12일 진행되는 첫 소위원회를 시작으로 분과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장애 편견 없애기 노력할 터”

종광 스님 대통령표창 수상

“장애·비장애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종광 스님(기림사 주지)이 4월 20일 제29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보건가족복지부(장관 전제회)가 시행한 유공자포상 대통령표창을 수상해 소감을 밝혔다. 이번 포상은 장애와 역경을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종광 스님은 1994년부터 15년간 △어려운 세대 후원 △초등학교 정기 장학금 지원 △지역주민 한문교실 후원 △청소년 정보교류활동 후원 △다민족 다문화체험활동 후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했다. 스님은 “육체가 건강해도 정신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듯이 어느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다. 나 스스로부터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장애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싶었다”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스님은 2003년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취임 후 시설개보수 및 환경정비와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에 주력해 경북장애인복지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054) 776-7522 이나은 기자

인천불교총련, 봉축 지도자법회 봉행



인천불교총연합회(회장 대인)는 4월 22일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봉축 지도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지역스님, 정세균 민주당 대표, 안상수 인천시장 등 500여명은 인천세계도시축전' 성공개최를 기원했다. 김성우 기자

세계대장경위원회 동대에 빨리어삼장 기증



세계대장경위원회(위원장 이능) 등 대국대표단은 4월 23일 동국대를 방문해 빨리어삼장을 로마자로 옮긴 세계대장경(World Dharma Drum Corps) 40권을 기증했다. 이날 기증된 대장경은 동국대 중앙도서관 2층 서고에 보관됐다. 조동섭 기자

안양경찰서 한미음선원 혜원 스님에 감사장



안양경찰서 경승위원회(위원장 현호)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4월 30일 안양경찰서에서 봉행했다. 우희주 경찰서장은 경찰포교 활동에 기여한 한미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을 비롯한 7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나은 기자

부천남부서 봉축법요식 봉행



부천남부서 경승위원회(위원장 성민)는 4월 29일 새내법당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법요식에는 성인 스님(대덕사 주지) 외 경승위원 스님들과 최경식 경찰서장, 향림사신도회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우 기자

관음사 동자승 백의관음보살 소재의식



한국불교대학 관음사 스님들은 4월 25일 참종은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으로 구성된 봉축 동자승 14명과 함께 대웅전 백의관음보살 법체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뒤는 의식을 봉행했다. 손법진 대구지사장

Large advertisement for the book 'Chun-seong' (춘성) by Mun-be Seon. The ad features a portrait of the author, a large title, and promotional text. The book is described as a bestseller in the Buddhist category, priced at 15,000 won. The text highlights the author's life story and his teachings on compassion and wisdom.